

# 고려시대 鍔帶 연구

전병진\*

- I. 머리말
- II. 과대의 용어와 형식
- III. 고려시대 과대 사례와 특징
- IV. 시기적 변화와 중요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과대(鍔帶)란 허리에 두르는 장신구로써 가죽이나 천 등으로 만든 띠에 금속으로 만든 장식을 달아 놓은 것을 말한다. 과대는 삼국시대부터 복식의 변화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신구로써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는 금속공예 기법이나 시대적 문양이 반영된 공예품이다. 또한 대외교류 물품이나 하사품에 과대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중요하게 여긴 장신구이자 위세품이라 판단된다. 이마저도 고려시대 과대는 수량이 많지 않고 현재 국·사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과대들은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품이다. 이 과대들은 대체로 도자기 문양에 의한 상대 편년만 이루어져 있는데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이 금속공예품의 문양과 동일한 시기에 유행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적어 학문적 접근이 쉽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반면 분묘에서 출토된 과

\* 한국문화연구원

대는 동반유물을 통한 편년 연구가 가능하여 시기별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품으로 남아있는 과대의 시기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과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복식사적 측면<sup>1</sup>이나 개별연구<sup>2</sup>로만 진행되어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이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분묘에서 출토된 과대 편년을 통해 전세품의 시기를 규명하고 과대의 시기별 변화양상과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 II. 과대의 용어와 형식

과대라는 용어는 문헌기록에서 요대(腰帶)나 대(帶)로 확인된다. 이는 고려 이전인 통일신라의 복식에 대한 기록에서도 요대(腰帶)에 관한 규제의 기록이 있어 고려 이전부터 허리띠를 요대로 처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신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자황포(赭黃袍)에 건(巾)과 대(帶)를 착용하고 이를 상복(常服)으로 하였으며 요대(腰帶)는 허리에 둘러 끝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렸는데 이를 타미(鈹尾)라 하였다.’<sup>4</sup>고 한다. 즉, 요대라는 용어는 고려 이전부터 사용된 용어로 허리띠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송황제가 보내온 예물과 칙서에 의대(衣帶), 요대(腰帶)라 명칭한 『고려사』의 기록이 전한다.<sup>5</sup> 이후에는 관대(冠帶) 혹은 과대 제작에 쓰이는 재료와 허리띠를 합쳐서 옥대(玉帶), 금대(金帶), 서대(犀帶)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문헌 기록들을 통해 과대의 의미는 ‘옷에 차는 띠’, ‘허리에 차는 띠’라는 착장형태를 일컫는다. 이외에 관직에 있는 자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관대(冠帶)를 비롯하여 재료에 따른 용어가 사용되었다.

허리띠의 구성요소 중 과관은 옥(玉)으로 제작된 것도 확인되지만 제작기법의 특징과 문양을 알 수 있는 과관은 청동이나 은으로 만든 금속 과관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속 과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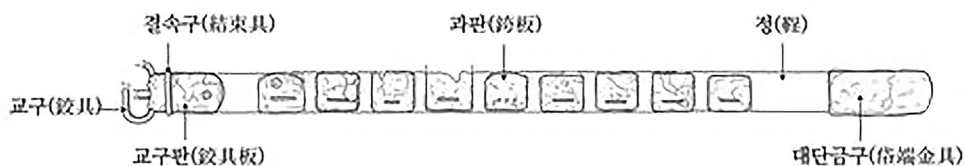
<sup>1</sup> 설유경, 『고려시대 과대(鈔帶)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sup>2</sup> 주경미, 『고려시대 천왕문과대 연구』, 『미술자료』 85 (2014); 조성현, 『고려시대 여지문 과대 연구』, 『삼성리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2 (2006).

<sup>3</sup> 『三國史記』, 卷33 雜誌 第2 色服. 眞骨大等. 幘頭任意. 表衣·半臂·袴, 並禁罽繡錦羅. 腰帶, 禁研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襪任用綾已下. 履任用皮·絲·麻. 布用二十六升已下.

<sup>4</sup> 『新唐書』, 卷24志第14車服. 至唐高祖, 以赭黃袍巾帶為常服. 腰帶者摺垂頭於下名曰尾取順下之義.

<sup>5</sup> 『고려사』 세가9, 1072년 6월 26일(음) 갑술(甲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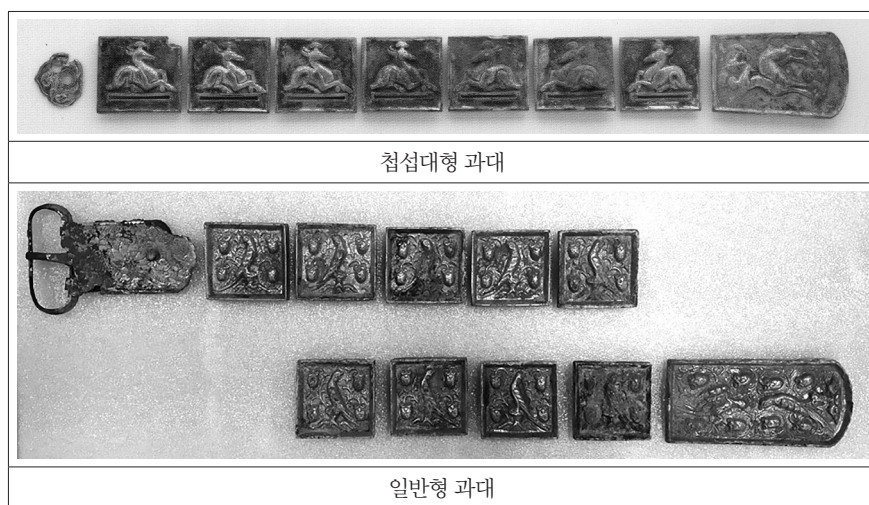
도 1 과대의 용어와 구성

제작기법과 문양에 대한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과대(鈔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과대는 크게 6부분으로 구성된다. 띠고리인 교구(鉸具), 띠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문양이 새겨지기도 하는 교구판(鉸具板), 교구판과 가죽끈을 잡아주는 결속구(結束具), 띠꾸미개인 과판(鈔板), 띠끝장식판인 대단금구(帶端金具), 허리에 두르는 가죽띠인 정(鞵)으로 구성된다(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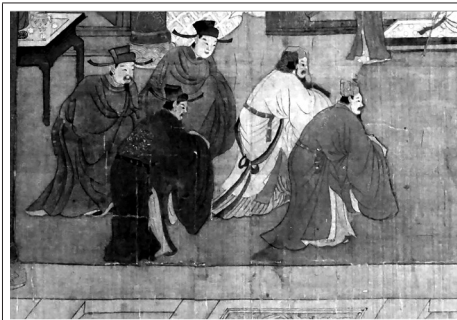
교구는 허리둘레에 맞추어 가죽끈을 반대편 구멍에 끼워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과판은 장식구를 매달거나 문양을 새기는 장식판으로 사용된다. 또한 대단금구는 허리띠 끝에 사용되는 장식판이다. 현재 확인되는 과대의 부속품은 가죽끈이 대부분 결실, 소멸된 상태로 확인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과대의 부속품은 금속으로 제작된 교구와 교구판, 과판과 대단금구 등만 남아있다.

과대의 형식은 과판 하단에 있는 장방형 구멍의 유무를 기준으로 첩섭대(黏鞵帶)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도 2). 첩섭대형은 과판에 장식을 매달수 있게 구멍이 있는 형태로 삼국시대부터



도 2 과대의 형식

통일신라 거쳐 고려까지 나타난다. 첩섭(鞬鞞)이란 가죽띠에 매달려있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말하며 유목민족들이 생활 필수품을 허리띠에 매달고 다닌 것에서 유래되었다. 고려시대의 첩섭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한 형식에서 계승된 것이다. 일반형 과대는 일자의 가죽 끈에 과판이 붙어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대를 말한다. 가죽끈에 과판이 붙어있으며 착장자의 허리에 맞게 끈의 길이를 조절하고 남은 가죽은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회화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여러 황후들의 그림〉, 傳이제현, 고려1287~1367, 국립중앙박물관



〈중흥사경도〉, 송 휘종 선화8년(1125년), 항주박물관

도 3 회화에서 확인되는 과대

회화에 그려진 과대는 모두 일반형으로 가죽끈을 허리에 맞게 조정하고 교구를 통과한 가죽끈을 길게 늘어뜨린 형식이다(도 3). 이러한 형태를 복식사에서는 야자대라고 부르기도 한다.<sup>6</sup> 회화에 그려진 검은색으로 된 긴 형태의 띠는 가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과판은 금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유물과 비교해보면 과판과 가죽의 색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야자대 형태는 고려시대 석인상에서도 확인되며, 과대를 표현한 석인상은 조선시대까지 나타난다(도 4).

<sup>6</sup> 안동시·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고려시대 안동』(예문서원, 2006), p.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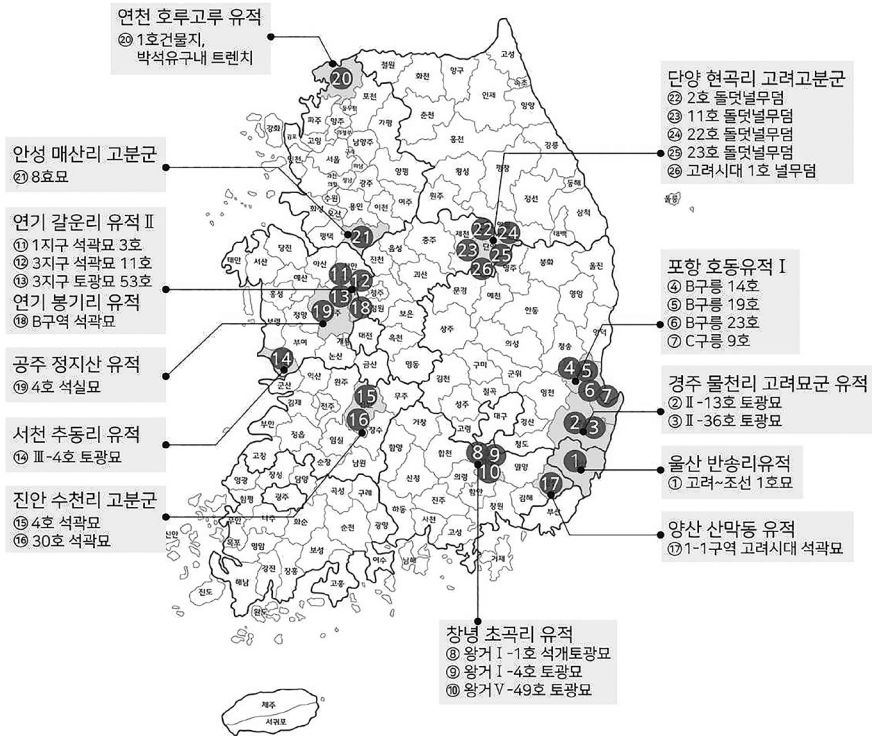


도 4 석인상에 표현된 과대

### Ⅲ. 고려시대 과대 사례와 특징

고려시대의 과대로 확인되는 작품은 전체 236점으로 발굴출토품과 전세품으로 분류된다. 발굴출토품은 30건 123점이며,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3건 36점이다. 전세품은 20건 113점이 확인되며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6건 64점이다. 하지만 전국의 박물관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발굴보고서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분묘에서 과대가 확인된 지역은 개성의 현릉(왕건의 묘)을 제외하면 충청도와 경상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굴성과의 결과이므로 추후 발굴 성과에 따라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도 5). 또한 분포범위와 출토 양상에 따른 지역적 차이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전국에 확인되는 과대의 분포상의 의미는 찾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 분묘군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과대가 부장품으로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장품으로써의 과대는 통일신라시대 적석목곽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부장품에 과대를 매납하는 이전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도 5 고려시대 분묘출토 과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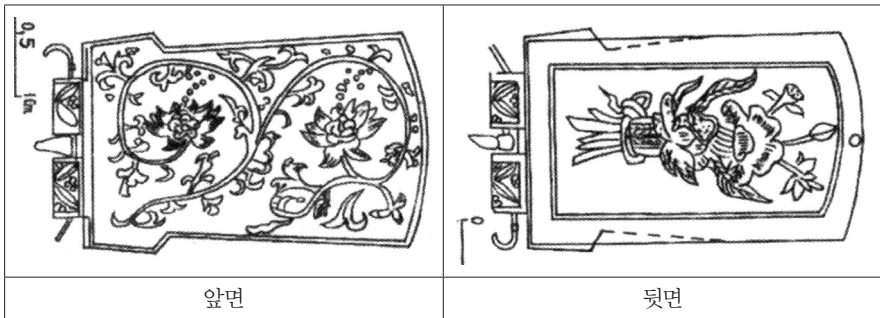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과대는 대부분 완성품이 아닌 부속품 일부만 매납되어 있는데 그 중 교구와 교구판, 과판이 주로 발견되며 대단금구와 결속구의 비중은 적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유적은 서천 추동리, 진안 수천리, 연기 봉기리 유적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과대의 6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출토되고 과판도 10개 내외로 인 것으로 보아 완성품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과대는 일부 편으로만 확인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며, 과대가 출토되는 유구에는 동반유물의 수량이 적거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완성된 모습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과판을 비롯한 과대의 부속품 중 일부만 매납되어 있는 경우 과대의 개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일하게 창녕 초곡리 왕거 V-49호묘에서 각기 다른 교구판이 2점이 출토되었다. 하나의 과대에 1개의 교구판이 존재하는데 2개의 교구판이 한 묘에 매납된 것은 피장자가 2개의 과대를 매납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세품 과대는 완성품을 포함하여 20건 113점으로 전국 박물관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독일의 박물관 등에서 확인된다. 안동태사묘에 소장되어있는 과대는 모란문 과대 1건과 각기 다른 여

지문이 새겨져 있는 3건이 전하는데 이는 기록이 함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앵무여지문 과대는 여지문과 앵무문이 같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과대이다.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여지문 과대는 장방형의 과관에 타출기법으로 화려하게 문양을 표현하여 현존하는 과대 중에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상명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기린문, 나한문 과대도 현재 유일하게 1점씩 남아 있다.

이들 사례 중 분묘유적에서는 왕릉급 무덤인 현릉과의 사례와 동반유물과 함께 나온 거의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진안 수천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과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품에서는 기록이 남아있고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안동태사묘소장의 4건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앵무여지문 과대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개성 현릉(왕건의묘) 유적<sup>7)</sup>



도 6 현릉 출토 교구판 도면

개성시에는 왕건릉인 현릉을 비롯하여 주변에 공민왕릉, 칠릉떼, 명릉떼, 선릉떼, 고릉 등이 밀집되어 왕릉군을 이루고 있다. 이 중 현릉은 왕건의 묘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7월 발굴조사를 통해 그 모습이 알려졌다. 능 북쪽 5m 지점에서 왕건의 초상 조각과 옥제 과판 11점과 금동 교구판 1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왕건 조각은 나체상으로 되어있으며, 출토당시 몸통의 여러 곳에 입혔던 옷의 부식된 비단천 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옷 위에는 착용되었던 과대 부속품인 금동교구판 1점과 옥제과판 13점이 출토 되었다. 금동교구판은 앞뒤를 붙이고 그 사이에 얇은 옥판을 끼워 넣었고, 길이는 11cm, 너비 5.5cm이며 앞면에는 모란문을 새

7 김인철, 『고려무덤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2003)

겼으며 뒷면에는 보상화문을 꽃다발 형식으로 새겨 넣었다. 이러한 옥제 과판 및 금동교구판의 실물은 공개되지 않아 도면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지만 실물을 바탕으로 한 태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 이를 통해 실물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실측도에서도 교구를 연결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교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옥제과판이 13개가 사용되고 금동교구판이 왕의 복식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고려전기 과대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중국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신당서』에서 과판의 재질과 개수를 제한한 기록이 확인된다.

문무3품은 금(金)과 옥(玉)으로 만든 띠 꾸미개 13개를 장식한 금옥대(金玉帶)를 착용하고 4품은 금띠꾸미개 11개 5품은 금띠 꾸미개 10개 6·7품은 은(銀)띠 꾸미개 9개 8·9품은 유석(鑰石) 띠꾸미개 9개 서인은 동철(銅鐵) 띠꾸미개 7개를 장식한 허리띠를 착용하도록 하였다.<sup>8</sup>

이 기록에서는 옥으로 만든 과판의 개수를 13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릉에서 출토된 과판의 수와 일치한다. 고려 전기는 아직 당의 복식을 사용하는 시기로서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고려 전기의 과대 규정은 품계에 따른 과대의 재료에 차등을 두었으며<sup>9</sup> 옥으로 만든 재료가 최고 등급의 관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고려도경』에도 당시 왕의 복식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고려 왕은 일상복으로 검은색 비단으로 된 높은 모자, 소매가 좁은 담황색 겹옷을 입고, 자색 비단 중간에 금빛과 푸른 빛으로 수놓은 허리띠를 두른다. 왕이 관원과 사민들을 만날 때에는 복두와 속대를 더한다. 왕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면류관을 쓰고 옥구를 든다. 고려 왕은 중국 사신이 방문할 때는 자색 비단 공복에 상아홀을 들고 옥대를 두르고, 행례할 때에는 신하의 역할에 매우 충실하다.<sup>10</sup>

고려 중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왕의 복식에서 자색 비단 중간에 금빛과 푸른빛으로 수놓

<sup>8</sup> 『신당서』 당(唐) 고종(高宗) 현경(顯慶) 1년(656)

<sup>9</sup> 『고려사』, 권72 지제26 여복 관복관복 통제. 冠服通制成宗八年三月始定東西北面兵馬使玉帶紫襟兵馬副使紫衣帶劍

<sup>10</sup> 『선화봉사고려도경』, 권7, 관복(冠服), 왕의 복식

은 허리띠를 둘렀으며, 중국 사신의 접견 때에는 옥대를 착용했다는 표현에서 교구판은 금으로, 과판은 옥으로 만든 것과 일치한다.

청동 왕건상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정밀한 고찰을 통해 10세기 후반경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sup>11</sup> 과대는 청동 왕건상과 동반유물로 출토된 것으로 청동 왕건상의 제작연대와 비교해 보면 시기를 10세기 후반의 유물로 추정할 수 있다.

## 2. 진안 수천리 고분군 유적<sup>12</sup>

진안 수천리 고분군 유적에서는 2개의 유구에서 과대의 부속품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4호 석곽묘에서 나온 과대 부속품은 청동제 과대로 교구 1점, 교구판 1점, 과판 9점, 대단금구가 출토되었다. 교구의 크기는 3.6×2.8×0.2(cm)이며 'C'자 형태이다. 과판의 크기는 1.3~3.6cm×2.0~3.1cm×0.6~0.8cm이다. 방형과 반원형 과판에는 장방형의 구멍이 있으며, 3~4개 동제정을 이용하여 맞붙힌 형태이다. 교구와 교구판이 합쳐진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과판과 대단금구도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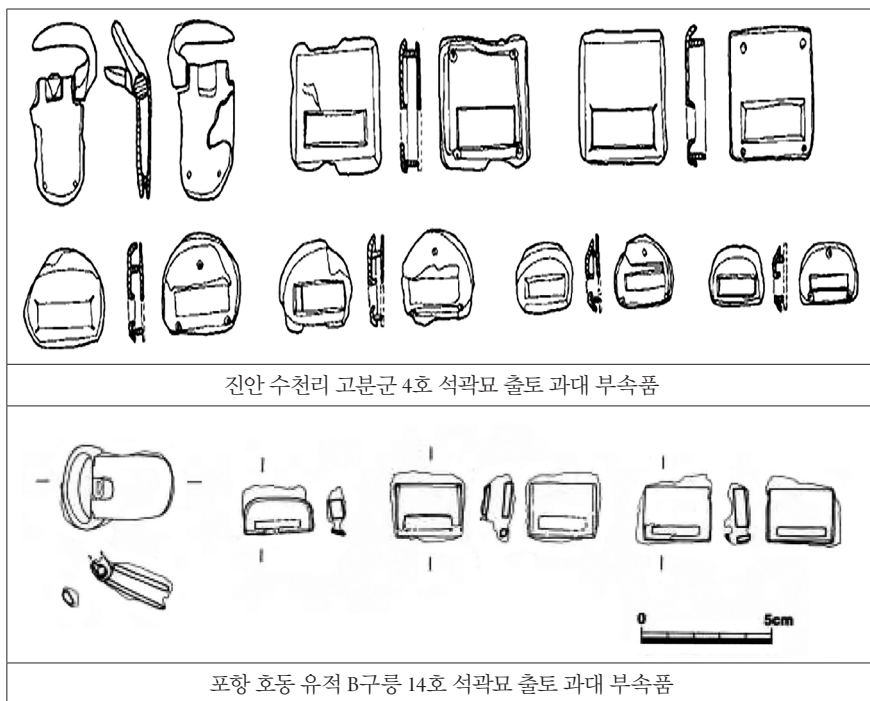
30호 석곽묘에서는 교구 1점이 출토되었는데 크기는 1.5×0.4×0.3(cm)이며, 교침은 납작한 동봉을 등글게 말아 교축에 부착시켰다. 표면에는 청동녹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포항 호동 유적에서도 확인된다(도 7). 호동 유적에서는 3기의 유구에서 과대의 부속품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2기의 유구에서 출토된 과판이 진안 수천리 고분군 출토 과판과 형태가 유사하다.

진안 수천리에서 출토된 과대는 11세기대로 추정되는 해무리굽 접시와 토기향완, 도기편병을 동반유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포항 호동유적을 비롯한 정지산 유적 등에서 출토된 과대들은 동반 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려전기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과대들은 대부분 동반유물이 없는데 이는 통일신라 분묘 부장양상과 다른 점이다. 진안 수천리 고분군과 포항 호동유적에서 출토된 과판에 장방형 구멍이 뚫린 형태는 통일신라 유적에서 출토된 과대와 유사하다. 음성 문촌리 유적이나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과판의 형태도 방형이나 장방형의 과판에 구멍이 뚫여 있는데 이는 고려전기의 과판의 형태가 통일신라의 구습을 이어받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의 고려사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sup>11</sup> 정은우, 「고려 청동왕건상의 조각적 특징과 의의」, 『한국중세사연구』 37 (2013).

<sup>12</sup>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V(2001).



도 7 진안수천리 고분군, 포항호동유적 출토 과대 비교

동국(東國)은 삼한(三韓)때부터 의장(儀章)과 복식(服飾)에서 토풍(土風)을 따랐다. 신라(新羅)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때 이르러 당(唐)의 의례(儀禮)를 따를 것을 청하였으니, 이후 관복(冠服)의 제도는 점점 중국(中華)을 따르게 되었다.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개국하자 초창기에 일이 많았으므로 신라의 구습을 사용하였다.<sup>13</sup>

### 3. 안동태사묘 소장(모란문, 여지문) 과대 / 안동태사묘 관리위원회

현재 안동태사묘에서는 여지문 3건, 모란문 1건의 과대 외에 백옥대와 오서대가 남아있다. 이중에 금속의 과판으로 이루어진 과대는 『영가지』의 기록에 태사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여지금

<sup>13</sup> 『고려사』, 권72, 지 권제26, 여복1(여복1), 여복 서문

대 1건과 공민왕이 안동부에 하사한 1건의 동철여지금대, 1건의 모란금대가 기록되어 있다.<sup>14</sup>



도 8 안동태사묘 소장 과대 (사진출처 : 안동시립박물관)

태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금대는(도 8①) 교구판 1점, 과판 3점, 대단금구 1점이 남아있다. 방형의 과판 중심에 꽃잎 모양의 바탕을 만들어 여지의 범위를 만들고 2개의 여지를 가지로 연결시켰다. 제작기법은 압출기법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중앙에 여지를 표현하기 위한 4개의 잎 바탕만 떨어져 나간 점은 2개의 부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과판을 완성했으리라 판단된다.

또다른 여지문 과대는(도 8②) 청동 과판에 주조와 투조기법으로 틀을 만들고 틀안에 새긴 여지는 입체감이 있게 표현하였다. 여지의 머리 부분에 세 점으로 꽃받침을 표현하고 가는 선으로 세부 표현을 마무리하였다. 교구판에는 3개, 과판에는 5개, 대단금구에는 8개의 여지를 표현

<sup>14</sup> 안동시·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p. 113.

하였다.

현재 전하고 있는 과대 중에 가장 상태가 양호한 모란금대는(도 8③) 가죽 띠와 함께 화문이 시문된 교구판 1점, 모란문이 시문된 방형과판 8점, 대단금구 1점이 남아있다. 모란은 중앙에 씨를 양 갈래로 표현하였으며, 세 겹으로 모란봉우리가 활짝 피게 표현하였다. 또한 바깥쪽으로는 원을 그리며 넝쿨이 둘러져있어 여백에도 섬세한 문양을 새겼다.

동철여지금대로 기록되어 있는 과대는(도 8④) 교구판 1점과 방형의 과판 8점, 대단금구 1점이 남아있다. 과대 전체에 동일한 문양으로 여지문을 선택하였으며 화려한 타출기법으로 제작된 중요한 사례이다. 과판은 단조기법으로 기본 틀을 만들고 압출 기법으로 여지의 큰 형태를 만들었으며, 타출기법으로 세부표현을 하였다.

#### 4. 앵무문·여지문 과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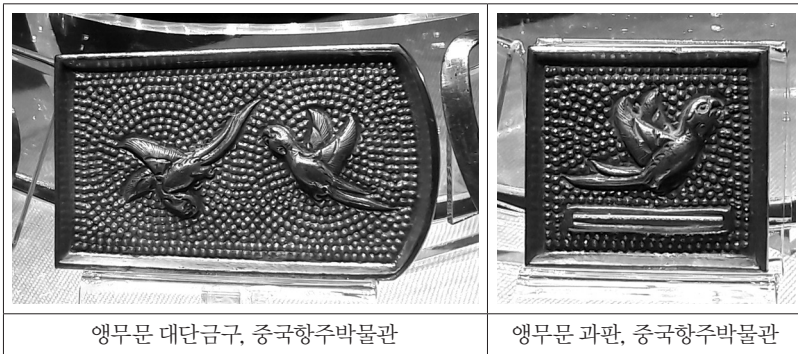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문 과대로 과판이 9점, 대단금구 1점, 교구와 교구판이 1점 존재하여, 완성품으로 추정된다. 교구는 'C'자 형태이며 고정쇠가 달려있다. 테두리판과 문양판을 잇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마감처리가 깔끔한 것으로 보아 주조기법으로 만들어진 과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뒷면에는 4개의 작은 못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가죽끈에 과판을 연결한 흔적으로 보인다. 크기가 3.5×3.5×0.7(cm)인 과판은 방형의 형태에 네 귀퉁이에는 여지가 장식되고 가운데는 앵무새가 장식되어 있다. 앵무새와 여지는 넝쿨무늬를 새겨 연결시켰다. 대단금구에는 두 마리의 앵무새가 마주보고 있으며 여백에는 넝쿨무늬를 가득 시문하였다. 주조기법으로 제작하였지만 과판에 새겨진 앵무새의 꼬리의 방향이 왼쪽으로 된 것은 4개, 오른쪽으로 된 것은 5개로 확인된다. 이렇게 제작된 이유는 주 문양의 방향이 교구판을 향해 마주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명대학교소장 기린문과대도 이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앵무문은 길상문 중 하나로 고려 중기 이후에 도자기의 문양에도 많이 쓰인다. 이러한 앵무문을 과대에 새긴 것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어 문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도 10). 오대 오월국의 앵무문양 유금<sup>15</sup>은제요대는 2001년 항주 뇌봉탑 지궁(지하궁전)에서 출토되었다. 전체길이는 68

<sup>15</sup> 고대 중국 도금(鍍金)의 기법. 금속 표면에 금의 수는 아말감을 바르고 가열, 수은을 증발시켜 표면에 금을 부착시킨다. 세계 각지에서 행해졌으며 중국에서는 춘추 말기 이후 청동기 장식으로 성행하였다.(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8., 한국사전연구사)



도 9 앵무새 여지문 과판의 비교



도 10 중국 五代 앵무문 과대

cm이며, 무게는 475g 이다. 1건 13점의 구성이며 출토시에 질서 있게 배열된 상태였다. 과판의 정면에는 한 마리에서 두 마리의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앵무새 모습이 있고, 여백에는 진주 모양의 장식을<sup>16</sup> 표현하였다. 뒷면에는 가죽과 결합을 위해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은못을 접합시켜 놓았다. 교구판 뒷면에는 ‘弟子陳承裕敬捨身上要帶入寶塔內-제자 진승유가 삼가 공경하며 허리

<sup>16</sup> 이 단어의 중국어 뜻은 다음과 같다.(青銅器紋飾之一。在主体紋飾空隙中填飾的細密紋飾，作為主体紋飾的衬地。：청동기 장식문양의 하나로 주된 문양의 빈 공간 사이사이를 채워 넣은 세밀한 장식문양이며 주된 문양에 대해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띠를 보답 안에 바친다.라는 15글자가 열게 새겨져 있다. 부처에게 이 허리띠를 바친 것으로 보아 헌납자 진승유의 경건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오대(五代)와 고려의 앵무문 과대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앵무문 과대는 첩첩대형에 앵무문이 주조기법으로 새겨진 반면 고려의 과대는 일반형에 앵무문이 여지문과 같이 새겨져 있다. 중국의 앵무문은 과판의 장방형 구멍이 흔적기관으로 사라지는 단계에서 새겨지지만 고려의 앵무문은 과판의 장방형이 사라진 단계에서 새겨지는 것으로 보아 문양의 유행이 고려보다 중국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앵무문의 등장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 IV. 시기적 변화와 중요성

이상의 과대를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10~11세기를 대표하는 과대 사례는 안동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각기 다른 여지문 과대 2건과 개성 현릉 출토 교구판, 진안 수천리 고분군 출토 과대가 있다. 12세기부터 13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과대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앵무여지문 과대와 연기 봉기리 유적 출토 과대가 있다. 또한 14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사례는 안동태사묘의 모란문 과대와 동철여지금대가 있다.

발굴출토품 과대의 형식 분류는 과판의 장방형의 구멍 유무에 따라서 2개로 분류하고 장방형의 구멍이 있는 과판은 다시 구멍의 크기에 따라 2개로 분류하여 과판의 속성으로 3기로 분류하였다. 과판에 장방형의 구멍이 작아지면 과판에 문양을 새기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라고 인식하였고 구멍의 기능은 퇴화한다고 판단하였다. 교구판은 문양의 시문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였는데 교구판에 문양의 시문이 되는 점도 형식 변화에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속성은 제작기법의 변화와 동반유물에 따른 편년에 따라 3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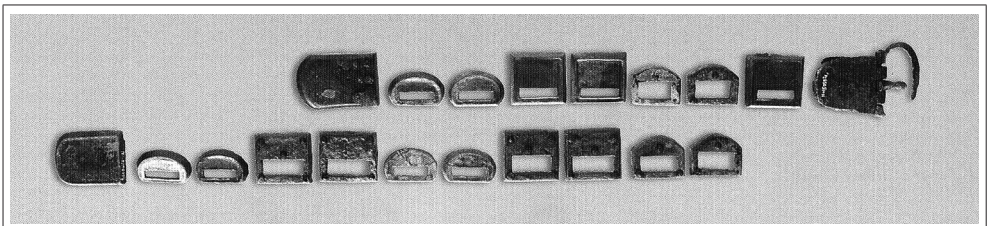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고려 전기는 고려 건국부터 11세기까지, 고려 중기는 12세기부터 충렬왕 집권 이전까지, 고려 후기는 충렬왕 집권기부터 고려멸망까지로 하는 3시기 구분법으로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려 전기(918-1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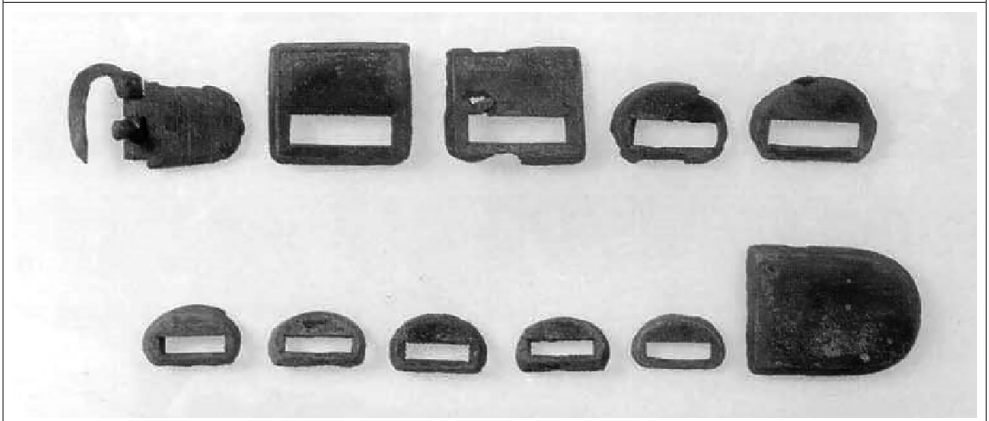
고려 전기는 고려 건국부터 11세기까지 해당되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안동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2건의 여지문과대이다. 분묘에서 과대가 출토된 유적은 개성의 현릉(왕건의묘), 연

기 갈운리 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 진안 수천리 고분군이 있다. 이 시기 분묘에서 출토된 과대의 부속품은 교구판 4점, 교구 4점, 과판 43점, 대단금구가 1점으로 총 52점이 확인된다.

분묘출토로 확인된 교구판은 평균길이 5.6cm, 너비 3.5cm이다. 대부분의 교구판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으나 개성 현릉에서는 모란문이 시문된 교구판이 확인된다. 교구의 형태는 C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고정쇠가 부착되어있다. 과판의 크기는 방형의 과판이 평균적으로 4.0cm 이하의 것이 주를 이루며, 형태는 반원형 또는 방형과판에 장방형의 큰 구멍이 뚫어져 있다. 과판의 제작기법은 같은 모양의 청동 또는 철제판을 양면에 대고 안쪽 네 모서리에 돌출된 못으로 두 판을 합쳤다. 이러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는 유실된 가죽부분의 공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음성 문촌리 출토 과대, 통일신라, 청주박물관



진안 수천리 고분군, 4호 석곽묘

도 11 통일신라와 고려 전기의 과대 비교

전세품으로는 안동태사묘에 있는 여지문 과대가 태사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천 호루고루유적의 고려전기 건물지에서 비슷한 제작 형태의 과판이 출토되었는데 동일한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판을 비교해보면 중앙에 메인

문양을 새기기 위한 구획 나눔과 메인 문양 밖에 사격자문을 새긴 것 까지 똑같다. 하지만 연천 호루고루 유적에서 출토된 과관은 안에 화문을 새겼으며 안동태사묘의 과관은 여지문을 새겨 차이점을 보인다(도 12). 이 같은 제작방식을 볼 때 안동태사묘에 소장중인 여지문 과대는 고려 전기 태사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과관의 제작형태는 방형의 청동판에 금박을 입힌 형태로 금동과대를 만들었다. 방형의 판에 문양을 넣을 부분을 구획한 뒤 외곽의 형태를 만들고 안에는 주조기법으로 문양을 형성하였다. 과관과 가죽의 연결은 네 모서리에 'U'자형 결속구로 연결하였다.



도 12 고려 전기 과관의 비교

## 2. 고려 중기(1101-1273년)

고려 중기는 1101년부터 1273년까지 해당되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앵무여지문 과대이다. 분묘에서 과대가 출토된 유적은 양산 산막동 유적, 서천 추동리유적과 단양 현곡리 고분이 있다. 이 시기 분묘에서 확인되는 과대 부속품은 교구판 4점, 교구 12점, 과관 25점, 대단금구가 4점이다.

전기에는 과관의 크기가 4.0cm 미만의 것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중기의 과관 크기는 4.0cm 이상이다. 과관 하단에 있는 장방형의 구멍은 기능적으로 퇴화하여 흔적기관으로만 남아 세장 방형으로 바뀌고 과관에 문양을 시문하기 시작한다. 과관에 직접 문양을 시문하기 때문에 장식 구를 매다는 구멍의 필요성이 적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2세기 전반에는 반월형의 과관과 장방

형의 과판을 같이 사용하지만 12세기 후기로 갈수록 방형의 과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나라 형식의 과대를 버리고 고려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갖춰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교구의 형태는 전기의 'C'자형을 이루던 형태가 'ㄷ'자형으로 다소 각지게 바뀌며, 교구에는 어자문을 시문한다. 또한 교구판에 문양을 새기는데 이는 형태의 정형성 외에도 문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전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판의 제작기법은 전기와 동일하게 양면의 판을 내면의 못으로 연결시킨 형태지만 교구판의 제작기법에서 전기와 차이를 보인다. 전기의 교구판 제작기법은 과판과 동일하게 양면의 금속판을 내면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 못으로 연결시켰다. 하지만 중기의 교구판은 가장자리를 'ㄱ'로 굽혀서 양면의 철판을 꺾인 부분을 맞대어 고정시켰으며 고정 못은 끝부분 중앙에 하나가 존재한다. 이는 교구판에 문양을 새기면서 문양판의 손상의 최소화하고 가죽이 맞는 부분이 적으므로 안에 비어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입체적으로 교구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도 13 양산 산막동 출토 교구판

발굴출토품의 교구판에는 전면에는 모란문이 뒷면에는 포류수금문이 시문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도 13) 이는 중국에서 확인되는 교구판에는 같은 문양을 양면으로 시문된 것과 차별된다. 모란문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문양으로 앞서 살펴본 현릉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포류수금문은 처음 등장한다.

이러한 포류수금문은 고려의 다른 공예작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유물로 국보 92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이 있으며, 동경과 향완 등 고려시대 공예의 주된 문양으로 사용된다(도 14). 포류수금문은 고려에만 나타나는 문양이며, 불교공예품에서 주로 채택된 문양이 과대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교구판 앞면에 모란문, 후면에 포류수금문을 새기는 것은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양식으로 고려만의 양식이라고 판단된다.



도 14 고려시대 공예품에 새겨진 포류수금문

고려 중기의 과대제도는 『고려도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록의 내용을 보면 송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당(唐)초에 이르러서야 차츰 오채(五彩)의 옷을 입었고, 백라(白羅)로 관(冠)을 쓰고 현대에는 모두 금고리로 장식하였다. 우리 송에 이르러 해마다 사신을 보내므로 자주 평상복을 내렸다. 고려에서는 점차 우리 중국풍에 젖게 되면서 천자의 총애를 입어 복식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 송의 제대로 한결같이 따르게 되었으니, 변발(辮髮)을 풀고 싶을 바꾸는데 그친 것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려는 관직명이 일정하지 않고, 조정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우리 송의 것과 다르므로 이러한 예를 열거하여 관복도를 그린다.<sup>17</sup>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현대에 금고리를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복식을 고려가 모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정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다르다고 한 것으로 보아 관복은 송과 일치하나 일상복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에는 첩섭대형의 과판에 문양에 새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주조기법과 선각기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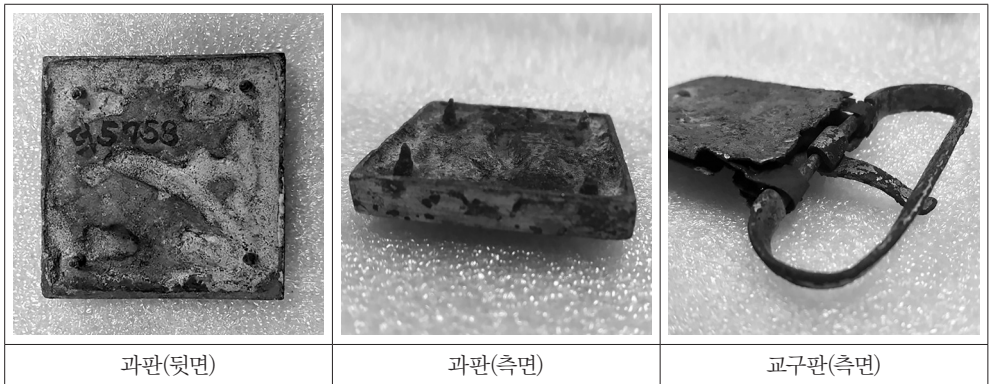
<sup>17</sup> 『선화봉사고려도경』, 권7, 관복(冠服)

모두 확인된다(도 15). 이는 고려 전기의 일반형과대에서 쓰이는 기법이 어이진 형태로 전기에서 사용했던 과대 제작기법과 동일한 형태가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도 15 고려 중기 철성형과대 과판

하지만 고려 전기의 일반형 과대에서 가죽과 과판의 결합은 'U'자형 결속구를 사용한 반면 중기의 과대에서는 양 네 모서리에 뾰족한 못을 과판 뒷면에 접합시키고 가죽에 연결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합 방법의 변화는 과판 전면에 깔끔한 문양배치와 결합의 용이함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교구판의 제작은 발굴출토품에서 확인되는 교구판과 마찬가지로 문양이 새겨진 얇은 판을 서로 맞대어 하나의 고정못으로 고정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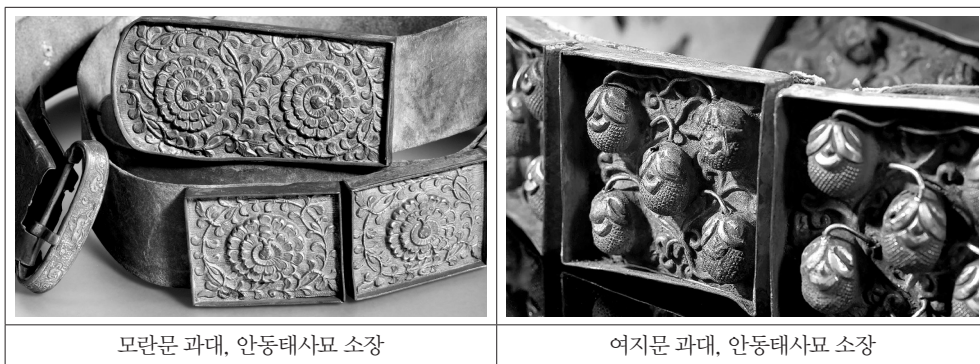


도 16 앵무여지문 과대 세부

### 3. 고려 후기(1274-1391년)

고려 후기는 1274년부터 고려말망까지 해당하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안동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모란문 과대와 여지문 과대이다. 분묘에서 과대가 출토된 유적은 창녕초곡리 유적과 경주 물천리 유적이 있다. 중기 때의 과판과 비교하여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형태상으로 장식구를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사라진다. 후기에는 과판에 더이상 장신구를 매달지 않고 과판 자체에 문양을 새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공예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과판의 크기는 4.5~4.7cm×4.2~4.5cm로 거의 정방형을 이루며 양 모서리 4개에 핀으로 고정시킨 흔적이 있어 속을 따로 만들어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교구의 형태는 중기에서 이어져온 형태인 ‘ㄴ’자형이 이어져오며, 교구에 어자문을 대신 당초문을 새기게 된다.

교구판에는 중기와 마찬가지로 모란문과 포류수금문이 시문되며, 모란문 대신 연화문을 시문한 것이 창녕 초곡리에서 확인되었다. 연화문이 나타나는 과대의 부속품은 지금까지 1점이 출토되어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대에 불교의 문양인 연화문을 사용함으로써 불교가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도 17 고려후기 과대 비교 (사진출처 : 안동시립박물관)

전세품인 안동태사묘소장의 모란문 과대와 여지문과대의 사례에서 고려후기의 뛰어난 공예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도 15). 타출기법으로 과대가 만들어지면서 문양이 더욱 도드라지며 입체감 있고 세밀하게 표현된다. 제작기법은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은 방형의 과판에 문양이 시문된다. 현재 남아있는 안동태사묘의 소장의 고려후기 과대를 보면 과판과 가죽의 연결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제작형태를 알 수 있다. 과판의 네 모서리에 금속의 결속구를 사용하여 가죽과

연결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결속구 뾰족한 끝은 다시 가죽띠의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도 18①). 교구판은 고려 중기부터 교구판 제작에 쓰였던 형태로 가죽끈 끝에 금속 두 개를 대고 못으로 고정시킨 형태로 제작했다.



도 18 여지문과대 결합부분 (사진출처 : 안동시립박물관)

이러한 여지문은 중국의 과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양국이 모두 과대의 문양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편적인 예로 중국 중경시 남춘 남송 소흥25년(1155년) 석실묘에서 여지문 과대가 출토되었는데 교구판에는 은도금을 했고 장식 문양은 연꽃과 자고를 새겼다. 송대에 유행했던 두드러 불룩하게 한 주조기법, 세선(細線)세공 등의 공예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했다(도 16).



도 19 남송의 여지문 과판 비교

이외에도 중국에서 여지문 과대는 많이 출토되고 있다. 강서성 수천의 정화4년(1114년) 형부 상서 광지장의 묘에서 출토된 여지문 은제유금과대는 교구판이 2점, 방형 과판 9점, 꿰뚫린 복승

아 모양의 과관1점, 대단금구 1점 등으로 되어있다. 강소성 오현의 원 대덕8년(1304년) 여사맹 묘에서 출토된 여지문 금동과대는 '문방왕현'이 새겨진 교구관 1점, 방형 과관 7점, 꿰뚫린 북송아 모양 과관 1점, 대단금구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영하회족자치구 은천의 서하 8호릉에서 출토된 여지문양 금제 끝장식 1점이 있고, 미국 보스턴미술관에도 여지문양 과관 1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12세기부터 타출기법으로 제작된 여지문과대가 유행하나 고려는 후기에 이르러서야 타출기법이 들어간 과대들이 확인된다. 이는 문양과 제작기법이 고려보다 중국이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어 고려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고려시대라고만 분류되었던 전세품의 과대를 발굴 출토품 과대를 통해 시기별로 분류하고, 변화 양상을 밝혀냈다. 또한 기록을 통해 외래와의 관계를 밝히고 검증함으로써, 시기별 변화의 이유와 문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고려시대 과대는 발굴출토품이 123점, 전세품이 113점이다. 과대는 교구, 교구관, 과관, 대단금구 등의 분류를 통해 3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에 따라 과관 및 교구와 교구관의 형태적 변화가 확인된다. 또한 제작기법의 발달로 인해 문양의 화려함과 실용성의 변이 과정도 인지된다.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나타나는 여지문은 제작기법의 발달과 함께 시기에 따른 입체적인 변화과정이 보이며, 모란문도 고려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사용된 문양이다. 이 외에도 앵무문과 기린문, 포류수금문 등 다양한 문양이 과대의 장식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제작기법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후기에는 타출기법이 더해지면서 문양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청동이나 동의 기본 틀에 금박을 입힌 금동과대도 제작되었다.

고려의 과대 양식은 중국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으며 특히 12세기가 되면 고려는 송, 요, 금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예품의 다양한 문양적 요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려는 과대의 제작기법이나 문양 등에서 독자성을 보이며 발달하게 된다. 교구관의 앞면에 모란문을 새기고 뒷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새기는 사례는 중국의 과대에서 볼 수 없는 고려만의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12세기부터 화려한 타출기법이 적용된 과관이 존재하는 반면 고려의 경우 13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중국의 과대 제작기법과 유행한 문양이 곧 바로 고려에 적용되기 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불교공예에서 주로 등장하는 문양인 포류수금문과 기린문, 나한문, 연화문 등 다양한 길상문이 과대에 새겨 지는데

이는 당시 유행한 문양을 받아들이고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양과 제작기법의 분석을 통해 과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확인된 236점 전체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개별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발굴성과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새로운 자료의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과대(gwadae), 금속공예(metal craft), 모란문(peony pattern), 포류수금문(willow and waterfowl pattern)

■ 투고일 2017년 12월 24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월 23일 ■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史記』

『新唐書』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 2. 한국어 문헌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 호동유적』 I, 2005.

김미희, 『고려청자의 포류수금문 연구』, 『백산학보』 80, 2008.

김문자, 『고려시대 장신구에 대한 연구』, 『한복문화』 15, 2012.

김인철, 『고려무덤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2003.

안동시·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고려시대 안동』, 예문서원, 2006.

우리문화재연구원, 『창녕 초곡리 유적』, 2010.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반송리 유적』, 200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V, 2001.

은영자, 『高麗時代의 裝身具에 關한 研究』, 『과학논집』 1, 1973.

이종민,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山本孝文, 『韓半島의 唐式 鈔帶와 그 歷史的 意義』, 『영남고고학』 34, 2004.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단양 현곡리 고려고분군』, 2008.

설유경, 『고려시대 과대(鈔帶)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물천리고려묘군유적』, 2007.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물천리 고려묘군 유적』 II, 2013

정은우, 『고려 청동왕건상의 조각적 특징과 의의』, 『한국중세사연구』 37, 2013.

조성현, 『고려시대 여자문 과대 연구』, 『삼성리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2, 2006.

주경미, 『고려시대 천왕문과대 연구』, 『미술자료』 85, 2014.

중앙문화재연구원, 『연기 갈운리 유적』 II, 2011.

최응천, 『고려후기의 금속공예』, 『강좌미술사』 22, 2004.

충청문화재연구원, 『서천 추동리 유적』, 2006.

## 국문초록

고려시대 과대는 총 223점으로 분묘출토 107점 중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3건 36점이다. 전세품의 과대는 113점이 확인되며, 완성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6건 64점이다. 문양은 발굴출토품에서 모란문과 포류수금문이 다수 확인되며, 전세품의 과대에는 여지문, 기린문, 보상화문 등 더욱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고려전기는 고려건국부터 11세기로, 대표적인 전세품 사례는 안동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2건의 여지문 과대가 있다. 분묘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진안 수천리 출토 과대와 포항 호동 유적 출토 과대이다. 과대의 형식은 통일신라에 유행했던 첩첩대형 과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구 형태는 c자형으로 대부분의 교구판에 문양이 새겨지지 않으나 현릉의 사례에서 모란문 교구판이 확인되었다.

고려중기는 12세기부터 13세기 중반으로 대표적인 전세품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앵무여지문 과대이며, 분묘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서천 추동리 유적 출토 과대와 연기 봉기리 유적 출토 과대가 있다. 교구는 전기의 'C'자형 교구를 쓰기도 하지만 'c'자형 교구가 동시에 나타나며, 교구에 어자문을 새긴 것이 확인된다. 교구판 앞면에는 모란문을, 뒷면에는 포류수금문이 새겨진다. 과판이나 교구판에 문양이 새겨지기 때문에 과판에 있는 장방형의 구멍의 용도가 적어져 흔적기판으로만 남게 된다. 또한 동일한 문양의 과판을 생산함으로써 통일된 문양과 제작기법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고려후기는 13세기 중반부터 고려 멸망까지로 대표적인 전세품 사례는 안동태사묘에 소장하고 있는 모란문과대와 동철여지문 과대이다. 분묘출토 대표적인 사례는 창녕 초곡리 출토 과대와 단양 현곡리 출토 과대이다. 교구는 'c'자형으로 교구 옆면에 당초문을 새긴다. 교구판은 중기부터 이어져온 양식인 모란문과 포류수금문을 양면에 새기며, 모란문 대신 연화문을 새긴 교구판도 확인된다. 또한 과판과 교구판에 문양이 새겨지는 것이 일반화 되어 과판에 장방형의 구멍이 사라진다.

과대는 중국의 제작기법과 문양의 유행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려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교구판은 앞면에 모란문을 새기고 뒷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새기는데 이는 고려만의 특징이다. 또한 불교공예에서 주로 등장하는 문양인 포류수금문과 기린문, 나한문, 연화문 등 다양한 길상문이 과대에 새겨 지는 것은 당시의 문양의 유행이 과대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A Study on Gwadae of the Goryeo Dynasty

Jeon, Byoung-jin\*

Among 223 broken pieces of gwadae—belts of government officials—from the Goryeo, those excavated from tombs are 107 pieces, and 36 pieces of them are assumed to be parts of 3 complete examples. Among 113 broken pieces of gwada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64 pieces are assumed to make 6 complete examples. The excavated examples are decorated mainly with peonies or the willow and waterfowl pattern, while those handed down from the past carry various motifs including lychees, Girin, and floral medallions.

The early Goryeo is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to the 11th century.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 gwadae passed down from this period are the two decorative belts with a lychee pattern currently held in the Taesa Shrine in Andong. The most important among excavated ones are those discovered in Sucheon-ri of Jinan and the Ho-dong site in Pohang. They succeeded the type of gwadae popular during the Silla with decorations hanging down from a belt. The ring in a belt is shaped like a C in the period. The panel attached to a ring mostly does not have any decoration, but the one in the belt from the Hyeonleung carries a peony pattern.

The middle of the Goryeo is from the 12th century to the 13th century. The most representative gwadae handed down from this period is the one decorated with parrots

---

\* The Korea Archaeology and Art History Research Institute

and lychees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ile those unearthed from the Chudong-ri site of Seocheon and the Bonggi-ri site of Yeongi are the most well known among excavated examples. Some of these gwadae still carry a C shaped ring, while a new type of rings in the shape of that are decorated with ring-matted patterns appeared. The panel attached to a ring typically carried a peony pattern on the front and the willow and waterfowl pattern on the back. As the panels consisting the body of a belt or attached to its ring were decorated, the holes in the panels to hang down decorations were not functional anymore. By applying a single pattern to multiple panels, decorations in a belt became more consistent.

The late Goryeo is from the 13th century to the end of the dynasty. The most representative gwadae handed down from this period are two examples in the Taesa Shrine in Andong: one with a peony pattern and the other with a lychee pattern. Among those excavated, the belts excavated in Chogok-ri of Changnyeong and Hyeongok-ri of Danyang are the most famous. These belts have a shaped ring, which is inscribed with an arabesque design on its side. The panel attached to a ring was typically decorated with a peony pattern on the front and the willow and waterfowl pattern on the back as in the previous period. However, the peony pattern was sometimes replaced with a lotus pattern. As the practice of decorating the panels instead of hanging down decorations from them was established, the holes in the panels finally disappeared.

Korean gwadae are usually regarded as having adopted Chinese production techniques and patterns. However, the decoration of gwadae from the middle to the late Goryeo, especially those with a panel attached to a ring with peonies and the willow and waterfowl pattern, is unique to Goryeo. Moreover, the auspicious patterns often found in Buddhist objects such as the willow and waterfowl pattern, Girin, arhats, and lotuses were applied to gwadae, showing that the decoration of Goryeo gwadae was inspired by contemporary Goryeo craftworks.